



# 군종주보

2024년 9월 29일(제1213호)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니, 우리들의 동료기 되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40)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두고, 그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아 보려 했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을 하는 일을 막지 말 것이며, 그들 또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곧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예수회 수사인 칼 라너(K. Rahner)는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에”(1티모 2,4)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여 다른 이들을 함부로 알아보거나 배척해서는 안되며, 그들 또한 진정한 자아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주어진 구원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라너는 이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좋은 일을 해 나가는, 그를 통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너, 우리들의 동료기 되어라!” 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가 함께할 동료들을 모으면서 한 말입니다. 자신과 싸우던 적까지도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동료로 부르고 포용하는 이 말에, 한동안 SNS상에서 동호회나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제한이나 차별 없이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이들을 초대할 때” 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종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보다 더 밝게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느님의 나라를 충만히 살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일입니다.”(1티모 2,1.3)



조해용(요셉) 신부  
철성(육군 제7보병사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민수 11,25-29

회 답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 2 특 시

야고 5,1-6

복음 관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 음

마르 9,38-43.45.47-48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 열일곱 번째 시

또 한 사람은 위에서 말한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는 어떤 새 신자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자기도 입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의 우상들과 미신을 치워버리기 위하여 귀신 단지를 힘껏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단지는 깨지지 않고 땅 위에서 데굴데굴 굴러갔습니다. 이때 그는 성호를 긋고 나서 그 단지를 다시 집어 들고, 이번에는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내던졌는데 단지는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새 군인은 모든 미신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온순하던 말이 별안간 광증을 부려 사람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착한 예비 교우는 귀신이 말에 접한 줄로 여기고 너무 격분하여 말을 당장 죽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신의 요상스러운 장난이 똑 그쳤습니다. 그 예비 교우는 더욱 굳센 신앙과 열심으로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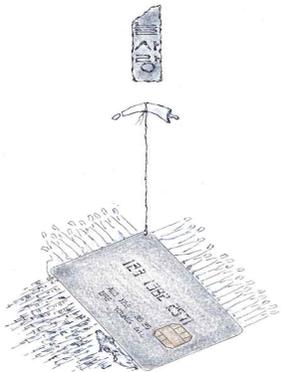
또 어떤 읍에 사는 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입교하였는데, 그의 모친과 아내가 결사 반대하며 날마다 뿔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항구심으로 신앙 안에 버티어 내면서 열심히 수계하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다른 때보다 더욱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착한 새 신자 아들은 귀찮아서 밭으로 피해 가서 하루 종일 굶어 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함지에 음식을 담아 가지고 굶주리고 고달픈 농사로 지친 아들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길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별령 나자빠졌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함지까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그런데 밥그릇도 말짱하고 음식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는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다. 아들이 나보다 옳다. 내가 공연히 아들을 괴롭게 들볶았다. 그 별로 나는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으나 하느님을 공경하는 내 아들이 먹을 음식만큼은 쏟아지지 않았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감동되어 자기도 교우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유혹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무게로  
나를 당기는  
많은 유혹들.

딱 그만큼의 힘으로.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 베드로 성당의 baldachin(天蓋)



지인 로렌조 베르니니(Gianlorenzo Bernini, 1598년 ~ 1680년) 1623년 ~ 1634년 제작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baldachin (Baldachin, 천개(天蓋))은 바로크 예술의 대가 중 한 명인 로렌조 베르니니가 설계·제작한 것으로 ‘닫집’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

이곳은 성스러운 대성당 내부에 특별히 더욱 성스러운 장소를 만든 것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성 베드로 성인의 무덤 바로 위에, 미켈란젤로가 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 아래에 지어져 있다.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시는 대제단을 수용하고 있으며, 천개 바로 아래(내부)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장식의 기둥(솔로몬의 기둥이라 부른다)은 높이가 28m로, 기둥 위에는 사람 키의 두 배가 넘는 거대한 청동 천사 조각상이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이를 압도하는 이 공간은 미사를 통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있는 지상의 공간을 천상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제주해군 박재술 신부

◆ 교구장 동정

- 태 풍(제28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9일(주일)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